

이스라엘發 중동 리스크... 다시 고개 든 국제유가

브렌트유 배럴당 90.43→100.49달러로 뛰어
서부텍사스산 원유가도 89.61→95.52달러 기록
증시는 전쟁 면역력 커져... S&P·코스피 신고가

레바논 공격 재개 파문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 협정 중에도 서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며 중동 전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글로벌 주식 시장은 전쟁보다는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6일(현지 시간) 레바논 국영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크파트 테브니트를 공습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14명이 사망했다.

레바논 시아파 무장 단체 헤즈볼라는 같은 날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이스라엘 군에게 자폭 드론 폭격을 가했다.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병사 1명이 죽고 6명이 부상당했다. 아비하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아랍어 대변인은 “헤즈볼라의 휴전 위반에 따라 군은 강력한 대응에 나

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헤즈볼라는 성명문을 발표해 “레바논 남부 및 이스라엘 북부의 표적을 공격한 것은 일시적 휴전이 발표된 첫날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끈질긴 휴전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며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휴전 위반과 레바논 영토 점령 및 주권 침해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레바논 시아파 무장 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전쟁이 확대됐다. 헤즈볼라는 대표적 인 친이란 세력으로 분류된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을 당시 이스라엘은 미국-이란 전쟁 휴전과 헤즈볼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란이 이에 반발하며 레바논 전쟁으로 휴전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휴전을 발표했으나 양측 간 충돌



26일(현지 시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를 공습했다. 주식 시장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음에도 코스피는 27일 장중 6621.66까지 올랐다.

연합뉴스

이 지속됐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깨고 다시 전쟁에 돌입한다면 미국-이란 전쟁 또한 재개될 우려가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여러 변수가 발생하며 국제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20일 배럴당 90.43달러까지 떨어졌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27일 기준 배럴당 100.49달러로 올랐다. 20일 배럴당 89.61달러였던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27일 기준 95.52달러로 올랐다. 다만 주식 시장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인텔이 1분기 실적 기대치를 넘는 실적을 기록하며 주가가 급등하여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지수 또한 27일 6600을 넘어섰고 역대 처음으로 시가총액 6000조 원을 돌파했다. 전쟁 발발 이후에는 미국-이란 전쟁 구도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주가가 요동쳤으나 시장이 적응하며 큰 반응을 보이지 않

고 있다. 또한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알파벳·애플 등 거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종전 협상보다는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더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4월 이후 S&P와 코스피 신고가 경신이 시사하듯이 주식 시장이 이번 전쟁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져 미국-이란 협상 이슈보다 매크로와 실적 이벤트에 더 집중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HJ중공업, 3572억 규모 컨테이너선 2척 수주

HJ중공업이 유럽 지역 선주사로부터 1만1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한다고 27일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3572억 원(1달러=1480.6원) 규모로 회사의 2025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 9997억 원의 약 17.86%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2028년 10월31일까지다. 1만 TEU급 컨테이너선은 HJ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7700~90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바탕으로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는 최대 규모 선박이다.

2월 유럽 지역 선주사와 컨테이너선 2척 건조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2척을 추가로 수주한다. 이번 선박도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탈황 설비인 스크러버를 장착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친환경 컨테이너 운반선이다.

또한 선박이 항만에 정박할 때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엔진을 끄고 필요한 전력을 육상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장치도 설치된다.

이상철 HJ중공업 대표는 “친환경 컨테이너선과 고효율 설계 생산 시스템 구축으로 영도조선소에서 1만 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4척을 연속 건조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수익성 위주로 선별 수주 전략을 펼치고 고품질 선박을 납기 안에 인도하는 등 경쟁력을 더욱 높여겠다”고 밝혔다.

이영훈 기자 yhlee@skyedaily.com



HJ중공업이 건조한 컨테이너선. HJ중공업

이부진 200억 자사주 매입... 호텔신라 실적 반등 자신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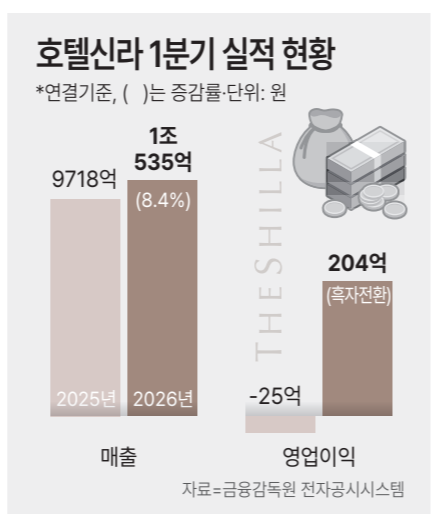
대표 취임 후 첫 직접 매입... 한인규 사장도 2억 매수
1분기 영업익 204억 흑자전환... 면세·호텔 동반 개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00억 원 규모의 호텔신라 주식 매입에 나서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호텔신라가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경영진의 잇단 주식 매입까지 이어지면서 책임 경영과 주주 가치 제고 행보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날부터 약 30일간 총 200억 원 규모의 호텔신라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할 예정이다. 호텔신라는 앞서 이 사장이 보통주 47만 주, 지분율 1.18%를 장내 매수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이 사장이 개인 명의로 호텔신라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2011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처음이다.

호텔신라 운영 총괄을 맡고 있는 한인규 사장도 지난달 23일 약 2억 원 규모의 호텔신라 주식을 장내 매수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최고 경영진의 연이은 주식 매입을 실적 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주주 가치 제고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호텔신라는 최근 실적에서도 반등 흐름을 보였다. 회사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5359억 원, 영업이익 204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 25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전 분기 41억 원 적자와 비교해도 개선 폭이 컸다. 사업부별로는 면세점에 해당하는 TR 부



문이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 1분기 TR 부문 매출은 88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늘었고, 영업이익은 12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고풍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불확실성이 이어졌지만 할인율 조정과

비용 효율화 등 수익성 중심 전략이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호텔-레저 부문도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 1분기 매출은 16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2억 원으로 228.0% 늘었다. 서울호텔과 제주호텔, 스테이, 레저 부문 매출이 모두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방한 외국인 증가와 고급 호텔 수요 회복, 객실 단가 상승 등이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가도 호텔신라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호텔신라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주가 10만 원을 제시했다. DB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도 각각 목표주가를 9만 원, 8만1000원으로 올려 잡았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도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면세점 업황 회복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사람 중심 휴먼르네상스 심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진심 담은 이야기로 마음을 브랜드하다

SkyDaily
변화의 본질을 담아, 내일의 브랜드 이끌다
심성브랜드연구소